

# 배뇨장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대변, 소변을 잘 못 보는 고통은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그중 배뇨장애는 드러내고 말하기도 어려워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방광이라는 곳은 하루종일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일정기간 저장하였다가 배출하는 기관으로 정상 성인의 경우 최대 용량이 약 400-500cc 정도 보통 150-200cc 가 차게되면 뇨 의를 느끼게 되며 하루에 보통 3-4시간마다 200-300cc정도의 소변을 보고 하루에 1500cc 정도의 소변을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배뇨장애의 원인은 크게 저장기능의 장애와 배출기능의 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 요로 결핵, 방광 결석 등이 있으며 후자는 당뇨나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신경장애와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도손상 등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주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하며 배뇨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소변의 시작이 잘 안되고 힘을 주어야 하면 소변을 지리거나 전혀 못 볼 수도 있다.

배뇨이상을 일으키는 흔한 질환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데 전립선이란 남자에만 있는 것으로 60세가 되면 약 50% 그 후에는 80%에서 비대증이 생긴다. 증상은 소변보기가 힘들고 자주 보며 소변줄기가 약해진다.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며 심하면 소변을 못 볼 수 있다. 치료방법은 약을 복용하거나 내시경으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성 요실금이란 기침을 하거나 웃거나 뒹 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지리는 증상으로 30대이후 여성에게 흔하며 대부분 신생아분만 등으로 늘어난 골반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생긴다. 치료는 가벼운 경우에는 투약요법이나 전기자극 치료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만성전립선염 및 전립선통은 또 20-40대 남성에게 많으며 대부분 비 세균성이다. 재발하는 경향이 있으나 후유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 증상은 빈 뇨와 잔뇨감,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회음부 통증 등이 있다. 전립선통은 주위근육의 경련에 의한 것으로 증세는 만성 전립선염과 같으나 전립선 액에서 염증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한경호 (한마음의원장 935-7582)